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고금리에 AI반도체주 하락..미국증시 약세

- 미국증시 주요지수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 미 국채 30년물 금리 5.33% 돌파, 19년래 최고치 재경신
- 반도체주 약세..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4.98%

Summary

미국증시 하락 마감

현지시각 8월 18일 화요일 미국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장기 국채 금리 상승과 반도체 등 AI 인프라 관련 고밸류 기술주 위주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일제히 하락.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22% 하락한 53,343.40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69% 하락한 7,691.76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1.33% 하락한 26,289.71에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100도 1.68% 하락. 중소형주 지수 러셀2천은 1.30% 하락했고 변동성 지수 VIX는 4.28% 상승.

(다우 -0.22%/ S&P500 -0.69%/ 나스닥 -1.33%/ 러셀2000 -1.30%)

미 국채 30년물 금리, 19년래 최고치 또 경신

미국의 최장기물,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일 5.31%를 넘기며 19년래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이날은 장 초반 추가 상승, 5.33%를 돌파함.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였던 2007년 6월의 5.44%에 한 발 더 다가서 19년래 최고치를 다시 경신. 10년물 금리도 장 중 4.75% 부근까지 상승해 2025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 장기 금리 상승세는 미국만의 일은 아니어서, 독일과 프랑스의 장기채 금리가 십 수년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일본 장기채 금리는 30년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요국 장기 금리 상승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정부의 대규모 차입과 재정 부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단에서의 회사채 발행 급증 등이 장기채 금리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 7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4,323억 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최대. 이에 9월 말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 전체 재정적자 규모는 2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미국의 총부채는 40조달러에 육박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도 급증하고 있음. 올해 7월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 이자비용은 1조 1,200억 달러에 달했음. 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더해지고 있는 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한정된 투자자 자금을 놓고 국채와 회사채가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짐. 채권 시장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은 결국 국채 가격 하락(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추후에도 투자자 확보를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압박이 존재하는 만큼 전방위적 금리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장 초반 금리 고점을 찍은 뒤 유입된 장기채 매수세로 금리 추가 상승은 일단 멈췄지만 여전히 채권 금리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좀 더 우세한만큼 높아진 금리 레벨은 고밸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심리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금리, 고밸류 종목에 직격탄..AI 반도체주 약세

높은 금리는 여러가지 이유로 주식 시장에 악재로 작용. 우선 안전한 미 국채 장기물 금리가 5%를 넘어가면 굳이 불확실성이 큰 주식 투자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유인이 떨어져 주식 투자자가 채권 투자로 넘어갈 수 있음. 또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 기업 이익에 적용되는 미래 이익에 대한 할인율도 높아짐. 주가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과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바꿔 평가한 것. 미래에 받을 돈은 일정 비율 할인율을 적용해 가치를 낮춰 반영하게 되는데 미 국채 장기물만 사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높아진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보유하는데 따른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 이는 곧 할인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할인율이 상승하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는 낮아지는만큼 기업의 실적 전망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게 됨.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의 경우 금리 상승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임. 여기에 장기채 금리는 모기지과 회사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만큼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즉 이자 비용이 높아져 직접적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침.

이 같은 이유로 이날 증시는 대체로 하락권에 머물렀음. 다만 업종별 희비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 다소 갈리는 모습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네오 클라우드 등의 고밸류 AI 관련 기술주가 크게 하락했고 헬스케어, 금융,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프트웨어주 등은 오히려 상승하는 순환매 양상이 나타남.

산업생산 부진, 수입물가는 안정

이날 발표된 지표는 대체로 금리 추가 상승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7월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2% 증가해 예상보다 부진했으며 수입물가는 상승 예상을 깨고 전달 대비 0.4% 하락. 산업생산이 부진하고 수입물가가 하락하는 흐름은 연준 금리 인상의 명분을 약화하는 것으로 이날 미 국채 금리가 하락 전환하는데 영향을 미침.

특징종목

S&P500 내 섹터별로는 IT(-1.93%), 산업재(-1.46%), 소재(-0.92%), 통신 서비스(-0.65%), 부동산(-0.45%) 등이 비교적 크게 하락. 다만 에너지(+1.79%), 헬스케어(+1.59%), 필수소비재(+1.06%), 금융(+0.45%) 섹터는 오히려 상승.

AI 반도체 등 기술주 급락

높은 금리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와 높은 금리로 인한 빅테

크들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는 결국 AI 인프라 투자 관련 밸류체인 내 낙수효과의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이 맞물려 대표적 AI 인프라 투자 수혜주 반도체주가 급락. 전일 7월 초 이후 처음으로 1,000달러대 주가를 회복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7.15%)가 6거래일만에 급락으로 돌아섰고 SK하이닉스(ADR, -9.20%)도 6거래일만에 약세 전환.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JP모건이 기존 550달러였던 목표가를 1,540달러로 약 세 배 상향하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으며 UBS 역시 매수 의견과 1,625달러 목표가를 유지했지만 이날은 장 중 내내 하락세를 보임.

이외 AMD(-4.27%), 브로드컴(-3.17%), 인텔(-6.58%) 등도 동반 하락. 샌디스크(-9.01%), 시게이트 테크놀로지(-9.16%), 웨스턴 디지털(-7.43%) 등의 스토리지 관련주도 낙폭이 컸으며 이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3.82%), 램 리서치(-4.63%), KLA(-5.33%) 등의 장비주, 코히어런트(-12.75%), 루멘텀 홀딩스(-9.87%), 코닝(-7.68%) 등의 광섬유, 광통신 관련 종목들도 낙폭을 키움.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98% 급락했고 SOXX(-4.96%), SOXQ(-5.03%), SMH(-4.09%), DRAM(-8.76%), DISK(-9.66%) 등의 반도체 대표 ETF들도 크게 하락. 이외 코어위브(-12.10%), 네비우스(-7.60%),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2.27%), IREN(-6.46%) 등 네오클라우드를 비롯한 AI 인프라 관련 기업도 일제히 약세.

빅테크 혼조

빅테크 기업들은 대체로 개별 이슈를 소화하며 혼조. 애플(+1.45%)은 접히는 아이폰 등에 대한 모건스탠리와뱅크오브아메리카의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0.27%)도 소폭 상승. 아마존닷컴(-0.71%)은 루이지애나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기존 12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세 번째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슈리브포트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약세. 엔비디아(-2.34%)는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현재 주가가 자체 가치평가 대비 최대 50% 할인돼있다고 분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350달러를 유지한다고 재확인했지만 약세.

메타 플랫폼스(-4.45%)는 최대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위험을 내재한 재판을 이날 본격 개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는 이날 29개 주 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모두 진술이 시작되며 이들은 메타의 SNS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 이번 재판에 패소할 경우 손해 배상뿐 아니라 알고리즘 변경 등의 사업 관행 변경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이 이어질 수 있어 메타의 사업 모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 한편 이번 재판과 별개로 청소년과 교육당국 등이 제기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법적 분쟁 관련 리스크는 한동안 메타의 발목을 붙잡을 것으로 보임.

알파벳(+0.06%)은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스피릿 항공의 일부 기업 데이터를 1,000만 달러에 인수해 AI 모델 개선에 활용하는 거래에 합의.

이외 특징주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12.73%)가 전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급락. 경쟁사 알리바바(+2.76%)는 오히려 상승.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7.28%)는 DA 데이비슨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강세. 일간 활성 이용자 성장 둔화와 수익화에 대한 우려가 그간 주가를 눌러왔으나 이제는 우려의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

원격 의료 플랫폼 업체 힘스 앤드 허스(-4.26%) 가 미 연방 거래 위원회 소송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져 하락. CNBC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로스앤젤레스, 유타주가 지난달 힘스 앤드 허스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은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메타와 스냅 등 광고 업체에 공유하고 진료 전 처방 비용을 청구했다는 부분, 그리고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부분이 쟁점이라고 전함. 회사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사업 모델에 대한 오해라고 해명했으나 주가는 약세권에 마감.

미국 에너지 및 유틸리티 기업 UGI 코퍼레이션(+9.40%)이 글로벌 사모펀드 KKR로부터 9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

Buy Now, Pay Later. 이른바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 클라르나그룹(-22.81%)이 연간 매출 가이드언스를 하향했으며 CFO와 CMO가 내년 초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주요 임원진 교체 소식까지 더해져 급락.

소셜 미디어 플랫폼 레딧(-3.80%)이 이날 S&P500 지수에 공식 편입됐지만 주가는 오히려 약세.

아밀릭스 파마슈티컬스(+63.84%)는 비만 수술 후 발생하는 저혈당증 치료제 아벡시타이드가 임상 3상 1차 및 2차 평가 변수를 모두 충족했다는 소식에 급등.

는(+0.76%) 이번주 실적 발표 앞둔 가운데 상승했고 홈디포(-0.12%)는 침체한 주택 시장에서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연간 전망은 상향 없이 기존 가이드언스를 유지했으며 주가는 약보합에 머무름.

키사이트 테크놀로지(-5.58%)는 회계연도 3분기 실적과 현재 진행 분기 가이드언스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 시도 있었으나 하락 전환.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유가 상승세..상승폭은 제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오름폭은 제한적. 전일 이란과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의 실현이 어떠한 성과도 없이 공식 만료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어떠한 협상이나 대화도 없다. 해상 봉쇄는 전면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호르무즈는 미국의 영토가 됐다”고 주장. 이란도 “미국이 MOU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혀 물러섬 없는 입장 차와 지루한 수사의 반복, 그러나 분명한 긴장 완화의 시그널은 없는 상황을 재차 확인함. 이는 국제유가에 상승 요인이긴 했으나 새로운 악재의 등장은 아니어서 강도는 제한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52% 상승한 배럴당 84.94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10월물도 0.47% 상승한 배럴당 91.02달러를 기록.

금값은 온스당 4,500달러선에 부딪혀 하락 전환, 1%대 하락으로 온스당 4,420달러선을 기록했으며 은값도 3%대 하락으로 온스당 64달러선을 기록.

30년물 국채금리 5.339% 찍고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초반 장 중 고점을 찍고 하락해 3거래일만에 하락세를 보임. 최근 급격히 높아진 레벨에 대한 부담과 이날 다소 주춤한 국제유가 상승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하락한 것도 금리 추가 상승을 제어함.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0.4bp 하락한 4.1709%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1.8bp 하락한 4.7041%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2.3bp 하락한 5.2826%를 기록. 전 만기물이 하락한 가운데 장기물 금리 하락폭이 좀 더 컸던 영향으로 10년물과 2년물간 금리 차이는 53.32bp로 전일에 비해 1.34bp 축소.

장 초반 미 국채선물 장기물 쪽에서 대규모 매수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초반 5.339%까지 상승해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30년물 금리는 이후 하락세로 전환. 10년물 금리도 개장 직후 4.762%까지 튀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후 하락 전환.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34% 초중반대 수준으로 반영했고,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40% 후반대로 반영.

달러 강보합

달러 가치는 전약 후강의 흐름으로 강보합권으로 올라섬. 장 초반 국채 금리가 반짝 상승 후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 역시 하락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장 중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번지며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자 함께 낙폭을 축소, 소폭 상승권으로 돌아섬.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02% 상승한 99.652를 기록.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1,411.80원에 마감, 10개월만에 최저 종가를 형성. 뉴욕 차액 결제 선물환(NDF) 시장에서는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40원)를 고려하면 전일 서울장 종가 대비 1.50원 상승한 1,412.90원에 최종 호가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